

2026년 4월 2일

Hana FX Daily Letter

연준은 관망 중, 시장 시선은 트럼프 연설로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달러 약세에도 잔존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510~1,520원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감. 하지만, 시장 예상을 상회한 미국 소매판매 및 제조업 PMI 등 견조한 경제지표가 달러 하단을 지지. 여기에 장중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진 점까지 고려하면, 금일 환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종전 시점이나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반영된 낙관론이 실망감으로 되돌려지며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전일 동향 : 1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28.8원 급락한 1,501.3원 마감. 중동 사태 마무리 가능성과 WGBI 편입 자금 유입 기대감 등에 21.6원 하락한 1,508.5원에 개장. 장중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 확대되며 1,500원선 근접한 수준에서 정규장 종가를 기록.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의지를 피력하자 반동하며 1,513.3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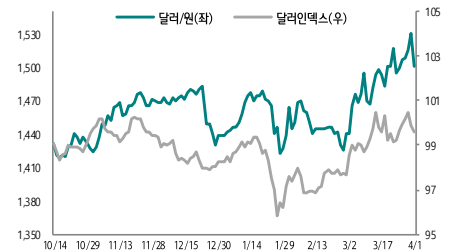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이란 간 종전 기대감에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으나 미 소비, 제조업 지표 호조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앞둔 관망세 등에 하락폭을 일부 되돌림
- (유로-달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자, 유로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감
- (달러-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견조한 미 경제지표로 인한 미 국채금리 반등에 엔화 강세 흐름이 주춤하며 소폭 약세를 보임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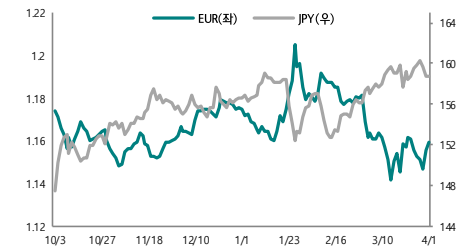
■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 하방 위험과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음. 이는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균형 정책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됨. 시장은 일단 즉각적인 금리인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임. 하지만,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정책 환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음. 트럼프 2기 체제 하에서 노동시장 약화가 새로운 균형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임. 더욱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된 가운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추가적인 물가 상방 리스크가 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비용 상승이 실물 경제 전반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시차가 존재함. 따라서 연준은 즉각적인 긴축 선회보다는 향후 6개월 정도 물가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결과적으로 연준 통화정책 요인이 단기간 내 급격한 달러 강세를 견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러나 향후 워시 연준 의장 체제가 예상치 못한 정책 행보를 보일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15:30 종가	02:00 종가	NDF
달러/원	1,508.5	1,501.3	1,513.3	1,515.6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89	158.82	6.8784
전일대비	+0.0036	+0.10	-0.0100
재정환율	1,739.87	945.26	218.2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2k	210k
00:00	로런 달러스 연은 총재 연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

위원	주요 내용
제롬 파월	현재 통화정책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기 좋은 위치에 있음
필립 제퍼슨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애나 폴슨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2%가 아닌 2.8%
닐 카시카리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한 지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현재로서는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갈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